

## 마태오 복음서 10장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마르 3,13-19; 루카 6,12-16)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sup>1)</sup>

1) “더러운 영” 곧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같은 권한에 속한다. 병은 사탄의 나라와 죄의 표징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다.<sup>2)</sup>

2)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1) “열두 제자”에서 “열두 사도”로 바뀐다. “사도” ‘파견된 이, 사자(使者)’, 더 나아가서는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이’를 뜻한다. 그리고 ‘열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상응한다.<sup>3)</sup>

2)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당시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시키신다.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다**(마르 6,7-13; 루카 9,1-6)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sup>4)</sup>

1) ‘보내다’는 특수 사명을 띠고 파견된 이라는 뜻의 ‘사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

1) 마르 6,7 :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루카 9,1 :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 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91쪽, 각주 1.

3) 위, 92쪽, 각주 2.

4) 예레 50,6 :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으니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 산에서 헤매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아다니며 제 보금자리마저 잊어버렸다.

다. 유다교에도 공식적인 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와 동등하다'는 원칙이 통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이로 말씀하신다.<sup>5)</sup>

- 2) 기원전 721년에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뒤, 그 수도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혼혈 민족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그리집산 위에 자기들만의 성전도 가지고 있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이 없는 이들을 유다인들은 멸시하면서 상종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분단을 문제 삼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그것을 없애신다.<sup>6)</sup>
- 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상황 때문에 지역을 차별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가셨고,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셨다.
- 4) 복음 선포에 지역적, 인종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파견을 받은 자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 **8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sup>7)</sup>**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므로, 또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어야 한다.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인간적인 속된 생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 **9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 **10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sup>8)</sup>**

---

5) 앞, 각주 8 참조.

요한 5,36-37 :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6) 위, 각주 9 참조.

사도 1,8 :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7) 이사 55,1 :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사도 8,20 :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8) 민수 18,31 :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

- 1) 제자들 곧 복음 선포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다. 인간이 생활함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복음 선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11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복음 선포 과정에서 다른 이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12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13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 1) 복음 선포자들은 말씀으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다.
- 2)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sup>9)</sup>**

- 1) 먼지를 털는 것은 결별을 뜻한다. 부당한 고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고을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다.<sup>10)</sup>
- 2)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기적을 접하지 못했다. 자유의지로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박해를 각오하여라**(마르 13,9-13; 루카 21,12-17)

**16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sup>11)</sup> 그러므로**

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9) 루카 10,10-12 :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베드 2,6 :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10) 앞, 93쪽, 각주 14 참조.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sup>12)</sup>

- 1) 복음 선포자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박해도 당하며 끝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 2) 뱀은 지혜에 비유된다. 복음 선포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즉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한다. 참된 지혜는 순박한 지혜이다.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sup>13)</sup>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 1) 사람들은 복음 선포의 대상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그들은 박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 2)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박해도 있다. 그때는 복음을 증언할 기회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대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sup>14)</sup>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박해 중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 
- 11) 루카 10,3 :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요한 10,12 : 샓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사도 20,29 :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 12) 로마 16,19 :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코린 14,20 :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 13) 의회는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에 준하는 지방 의회를 가리킨다. 이 의회는 유대인 가운데 주요 인물 23명으로 구성되는데, 예루살렘 최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들과 관련하여 법정 구실도 하였다. 이 법정은 회당에서 열리고 바로 그곳에서 “채찍질”과 같은 체형도 가해졌다(앞, 각주 15 참조).
  - 14) 탈출 4,10-12 :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쑥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네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심지어 가족 친지들조차도 반대한다. 더구나 그들은 복음을 버리라고 유혹까지 할 것이다.

**23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 1) ‘이스라엘 고을을 돌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선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돌아 다니는 피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sup>16)</sup>
- 2) 박해를 피해 피신하는 것은 정당하고 지혜에 속한다.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죽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순교가 불가피할 때는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피신하여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도 순교하려고 해서 안 된다. 순교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은총이요 영광이다.
- 3)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4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25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 1) 집 주인은 예수님을, 그 집 식구들은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2)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했다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보다 큰 박해를 가할 것이다. 이를 각오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루카 12,2-9)

**26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

15) 사도 5,41 :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1베드 4,14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6) 앞, 각주 17.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파견받은 복음 선포자들은 세상 사람들 곧 박해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선포는 지붕 위에서 곧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8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sup>17)</sup>**

- 1) 육신은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영혼은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삶의 원리,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자체, 생명의 하느님과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요소이다.<sup>18)</sup>
- 2)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 곧 인간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sup>19)</sup>**

**30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 1) 제자들이 죽을 때는 하느님께서 모른 채하지 않으시며,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이다.<sup>20)</sup>
- 2) 파견받은 이는 하느님께서 늘 보호하고 계신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sup>21)</sup>**

---

17) 야고 4,12 :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18) 앞, 94쪽, 각주 21 참조.

19) 1사무 14,45 :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준 요나단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단을 살려 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사도 27,34 :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20) 앞, 각주 23 참조.

21) 2티모 2,12 :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를 흘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 하지만, 순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53)**

**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35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36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평화를 주셨다. 그런데 이 평화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사람과 화해함으로써 주어지는 평화이다. 그러나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이 된다. 즉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 칼이 된다. 파견받은 이는 이 또한 감수 인내해야 한다.

#### **버림과 따름(루카 14,25-27)**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sup>22)</sup>**

1) 여기서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의미한다. 가족 사이의 유대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가리킨다.<sup>23)</sup>

2) 지혜롭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8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

22) 신명 33,9 :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23) 앞, 95쪽, 각주 28 참조.

- 1) 십자가를 지고 따름은 예수님께서 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름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따름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다.
- 2) 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뜻한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 3) 생즉필사(生卽必死), 사즉필생(死卽必生)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받을 상(마르 9,41)**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받아들임은 단순한 손님 접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이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다. 나아가 파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sup>24)</sup>

**41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예언자들이나 의인은 예수님에게서 파견받은 제자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곧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로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 1) “작은 이들”은 우선 제자들을 뜻할 수도 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모든 이들이다. 그리고 더 큰 의미로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박해 때문에 가장 불우하게 된 이들, 그리고 가장 빈곤하게 된 이들이다.<sup>25)</sup>
- 2) 작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제자들을 파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

---

24) 위, 각주 30 참조.

25) 위, 각주 32 참조.